

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1

(16시23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송언석 간사님 간에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추가 합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인을 철회하고 증인 3인을 추가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기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언석 오기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호반건설 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2023년도 여름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 결과, 심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관심을 가졌고요. 작년에 그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법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그때도……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참 많은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 심결서 내용에 보면 국세청이 별도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심결서 내용 자체에. 그래서 여기 기재위에서 특히 중여세 문제, 가업승계 문제가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함께 다뤄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안 돼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저는 증인 채택에 있어서 왜 안 되는지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잉, 잘못된…… 기업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하는 거라면 저희는 사실 비판을 받아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럴 사안인가, 이런 정도는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좀 답답합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일주일이 안 된다고 해서 채택할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끝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두 분 간사님께 호반건설 건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각개 표결해서 한다면 표결 결과에 다 승복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문제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오기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꼭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주요하게 소관하고 있는 관세청에서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관세청의 직원이 마약조직에 연루되어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검색 없이 빼돌려 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행정안전위원회니 법제사법위원회니 청문회도 하고 국정감사도 해서 증인 불러 가지고 다 물어보는데 어떻게 이 일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 채택도 못 하고 가는가. 사실이 아니면 대로 확인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4명의 증인을 요청했습니다만 4명이 전부 다 안 된다면 그중의 핵심 증인 한두 명이라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부르려면 오늘 의결해야 되는데 간사 간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표결이라도 하자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안건을 의결할 의향이 있으신지가 제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차규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초만 주시면……

○정일영 위원 저도 10초……

○위원장 송언석 차규근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호반건설 증인 관련해서 오기형 위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사실 저희도 비교섭이기 때문에 정말 중인 한 분이라도,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신청하지만, 수많은 중인들이 있지만 한 분이라도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 하자는 게 아니고 정몽규 회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전영현 같은 경우에도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인 채택이 어렵더라도 양당 간사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 비교섭단체에서 신청한 중인 한 분이라도 꼭 채택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전에도 중인 신청 관련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라 말씀드렸던 게, 기재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국세청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기업들의 해외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그 기업들을 다 부를 수는 없다고 한다면, 오늘 또 예를 들었던 SK 같은 경우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이 너무 많아요. 케이맨 제도에 SK텔레콤 주식 100% 출자해서 지금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SK(주)도 마찬가지고 SK 이런 자회사들도 다 100%, 가장 적은 게 33.3%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이 이런 조세피난처에 가서 기업을 설립한다고 하면,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건 존중해야 되지요. 그런데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이유를 봤더니 이런 것도 있어요, 세액 감면 혜택 때문에 갔다고. 이런 것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우리가 반대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국감 할 때 말씀드렸고 오늘 국세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양당 간사님께서 한 번 더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제 옆의 진성준 위원님의 얘기하고 같은 건인데요. 시간이, 오늘 의결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인천공항 근무한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항의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 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간의 관심도 많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것 보면 관세청장이 휴대폰을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엄청나게 자주 바꾸었던 데 그것도 이것하고 연결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을 한번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기 위해서 중인을 4명 신청했는데 4명 다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백해룡 경정이라고 수사 외압 얘기를 한 분인데 현재 강서경찰서에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해룡 경정은 오늘 반드시 중인으로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감이, 관세청 국감

할 때 반드시 파헤칠 것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위원님들 중인 채택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수차례 발언을 하셨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두 분 간사님께서 며칠 동안 또 오늘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의한 결과 오늘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중인 채택 내용이, 지금 자료로 배포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신다고 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중인 채택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이 안건을 처리를 못 하고 다시 두 분 간사님이 추가로 더 협의를 해서 새로이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회의를 다시 이렇게 개최한 것은, 두 분 간사님이 오랫동안 숙의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의결하기 위해서 전체회의를 열자고 한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대로 이 합의된 내용이 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안건을 다시……

○진성준 위원 아니, 이것은 이것대로 의결하고요. 새롭게 중인 신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해 주세요.

○정태호 위원 이것 의결하시고 또 추가로 논의하면 되지요.

○위원장 송언석 간사님, 잠깐만 오십시오.

(위원장, 간사와 협의)

간사님들께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른 중인 채택의 건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의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중인들에 대해서?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신영대 위원 추가 협상 한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오기형 위원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일단 이것 보류할까요?

○박홍근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 잠깐 30초만 할게요.

○위원장 송언석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성호 위원 아니, 중인은 위원장이 간사랑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표결하는 거예요, 합의 안 되면.

○위원장 송언석 두 분이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세 분의 중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하자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논의하자’가 아니라 추가된 중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면 표결 처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중인 채택을 못 하니까, 시간 때문에.

○위원장 송언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이 결단해 주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 윤호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윤호중 위원님.

○ 윤호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이 건 처리하시고 위원회 회의는 정회를 해 주시고,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안에 추가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송언석 추가적인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 간사님께서 좀 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세 분의 추가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명단

증인(4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일자 및 대상기관	비고
양영철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내용 및 노동자 인권문제 등 면세점 지정 기준에 관한 질의	황명선	10. 18.(금) 관세청	철회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 및 소송 관련	안도결 오기형 정일영 최기상	10. 28.(월) 종합감사	추가
피터 알 텐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외국계 기업 조세 회피 행위 관련	정일영 최기상	10. 28.(월) 종합감사	추가
염상원	(주)가나안 사내이사	신성통상 자녀 편법증여 관련	오기형	10. 28.(월) 종합감사	추가

○출석 위원(26인)

구자근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영대 안도결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